

전후 일본, 한국, 대만의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전환에 관한 연구*

송 숙 정**

(e-mail : suejoan@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
| 2. 미군정기와 국민당 정부 | 3.1.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
| 2.1. 전후 일본의 국어교육 | 3.2. 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
| 2.2. 전후 한국의 국어교육 | 3.3. 대만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
| 2.3. 전후 대만의 국어교육 | 4. 결론 |

키워드 : 国家イデオロギー(National Ideology), 植民地言語政策(Colonial language policy), 暫定期(Interim period), 教科書(Text book), 台湾の国民党政府(Nationalist Government of Taiwan)

1. 서론

1.1. 연구목적

초등 국어교육은 한 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초등 국어교과서는 집권자의 사상, 정치적 의도나 통치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분석함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이념적 측면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아동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과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행해진 일본어교육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긴 상태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932)

**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식민지언어교육

서 그들의 사상과 정치적 목적을 이행하도록 강요당한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36년간 초등 교육을 받은 아동들에게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고스란히 흡수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일본어교육은 따로 떼어내어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해방 이후 이어진 한국 국어교육의 기초가 되었다는 연속선상에서 연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본고에서는 3가지의 시선에서 논지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첫째는 식민지 교육의 주체자였던 일본이 1945년 패전을 맞이하고 7년이라는 연합군 점령기를 거치며 그들이 일제강점기 각국의 식민지에서 그토록 강요했던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사상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연합군 점령기 국어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식민지 교육의 피해자로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이 국어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긴 50년의 식민지 교육의 피해자였지만, 해방 이후 국민당 정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맞이한 대만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그들이 주장한 ‘삼민주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다른 지배자의 등장에 따라 변화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학습하는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들로는 전후 한국과 대만, 일본의 교육개혁을 비교한 오성철(2012)¹⁾과 1945년 이후부터의 초등교육 확대과정을 연구한 오성철, 김배철(2008)²⁾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개혁의 근간에는 미군정기에 실시된 민주주의 교육의 실천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교육 안에 내재된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을 고찰한 이길상(2003)³⁾의 연구와 미군정기 교육정

1) 오성철(2012) 「전후 동아시아의 교육개혁 비교 연구 -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5권 1호, 서울교육대학교, pp.1-20.

2) 오성철, 김배철(2008) 「현대 한국과 대만의 초등교육 확대과정 비교 연구」 『한국초등교육』 18권 2호, 서울교육대학교, pp.165-184.

3) 이길상(2003) 「미군정기의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25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75-109.

책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 김상훈(2015)⁴⁾의 연구가 있다. 이 밖에도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과 국어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주로 한 정영훈(2012)⁵⁾, 허재영(2004)⁶⁾, 김진두, 김찬옥(2013)⁷⁾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희호(2012)⁸⁾의 미군정기 국어교재에 대한 맥락 연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의 교과서 발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사토 이즈미(佐渡泉, 2006)⁹⁾ 『国語教科書の戦後史』가 있다. 사토는 전후의 국어교과서에는 각 시대가 강요하고자 했던 이념과 교육제도 및 그 배경을 이루는 정치동향과 더불어 여러 수준의 의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일체 반영하여 그 안에서 변화해 갔다고 서술하였다. 이소 미즈에 외(磯水絵, 2018)¹⁰⁾의 『戦後日本の国語教育』는 제6기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오키야마 히카리(沖山光)를 통해 전후 변화물쌍한 상황 속에서 국어를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새로운 국어교육의 발상을 표출한 오키야마의 일대기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노무라 토시오(野村敏夫, 2006)¹¹⁾의 『国語政策の戦後史』는 전후 표기, 당용한자 뿐만 아니라 경어와 단어 사용 등 국어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이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대만의 해방 후 국민당 정부의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중 첸홍웬(陳虹玟, 2006)¹²⁾의 「終戦直後台湾における教科書編纂に関する一考察」는 종전 직후 대만에서 펼쳐진 국어교육의 변화과정 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편찬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서술하여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황잉츠어(黃英哲, 2002)¹³⁾의 「戦後台湾における「国語」運動の展開：巍建功の役割をめぐって」

4) 김상훈(2015) 「미군정기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인의 역할」 『역사연구』 28호, 역사학연구소, pp.119-163.
 5) 정영훈(2012)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 재론」 『배달말』 50호, 배달말학회, pp.197-222.
 6) 허재영(2004) 「과도기(1945~1955)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17호, 한글학회, pp.59-90.
 7) 김진두, 김찬옥(2013) 「미군정기 교과서 출판 연구」 『출판잡지연구』 21권 1호, 출판문화학회, pp.61-87.
 8) 이희호(2012) 「미군정기 『한글 첫걸음』 교재에 대한 맥락 연구」 『겨레어문학』 48집, 겨레어문학회, pp.517-553.
 9) 사토 이즈미(佐渡泉, 2006) 『国語教科書の戦後史』、勁草書房、pp.1-8.
 10) 이소 미즈에 외(磯水絵, 2018) 『戦後日本の国語教育』、沖山光研究會、pp.67-96.
 11) 노무라 토시오(野村敏夫, 2006) 『国語政策の戦後史』、大修館書店、pp.21-54.
 12) 첸홍웬(陳虹玟, 2006) 「終戦直後台湾における教科書編纂に関する一考察」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第55集第一号、東北大学、pp.15-36.

와 모리타 겐지(森田健嗣, 2014)¹⁴⁾의 「戦後初期台湾における言語政策研究再考—代行された脱植民地化の視角から」은 대만 국민당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행한 탈식민주의적인 국어교육의 실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후 각각의 상황에서 전개된 3국의 국어교육 개혁의 모습과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3. 연구대상

해방 이후의 국어교과서로는 일본의 경우 연합군 점령기인(1947-1949)에 발행된 제6기 국민학교용 『こくご(1-4권, 1, 2학년용)』 『國語3학년(상하), 4학년(상중하), 5학년(상중하), 6학년(상중하)』의 총 15권과 한국의 경우 미군정기(1945-1948)에 조선어학회가 발행한 『한글 첫걸음』과 『초등국어교본(상, 중, 하)』, 대만의 경우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의 시기(1945-1949)에 대만성 행정장관 공서교육처가 편찬한 『國民學校暫用國語課本(국민학교잠용국어과본)』 갑편(50과, 1, 2, 3학년용)과 을편(50과, 4, 5, 6학년용) 2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제강점기의 국어교과서와 비교한다.

2. 미군정기와 국민당 정부

한국의 경우, 해방 직후 위정자들에 의해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일본식 민족주의를 한국식 민족주의로, 일본인 교사를 한국인 교사로 바꾸는 개혁을 제외하면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교육 제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을 점령한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의 당시 가장 큰 교육 목표는 일본잔재의 청산과 대만의 중국화였다. 하지만 연이은 강압정치로 국민당 정부의 통치는 대만인들에게는 ‘재식민지화’와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13) 황잉즈어(黃英哲, 2002) 「戦後台湾における「国語」運動の展開：巍建ス功の役割をめぐって」 『法学研究：法律・政治・社会』 vol.75, no.1、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pp.401-427.

14) 모리타 겐지(森田健嗣, 2014) 「戦後初期台湾における言語政策研究再考—代行された脱植民地化の視角から」 『日本台湾学会報』 第十六号、日本台湾学会、pp.107-125.

일본 또한 패전을 계기로 천황제를 근간으로 한 군국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체제를 일신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7년간 통치 당하며 ‘군국주의 및 초국가주의의 근절’과 일본인의 ‘재교육’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일련의 조치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에서 전개된 전후 교육개혁이 역설적이게도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과 대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성과 진보성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고 평가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해방 직후 3국에서 행해진 국어교육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 일본의 경우는 미군정기(1945-1952)의 시기를,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기(1945-1948)의 시기를,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시기(1945-1949)로 한정하여 각 국의 국어교육 개혁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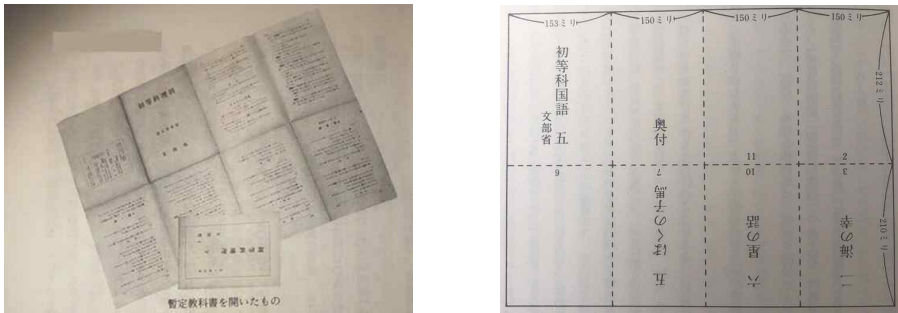
2.1. 전후 일본의 국어교육

1945년 8월 15일 패전으로 인해 연합군의 점령을 목전에 둔 일본은 전시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문부성은 8월 28일 평상수업 복귀지령을 내려 2학기 수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終戰) 한 달 후인 9월 15일에는 ‘신일본 건설의 교육방침’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9월 20일에는 문부차관 통첩으로 ‘종전에 따른 교과용서 취급방법에 관한 건’이 전달되었다. 문부성은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과서용지 배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5기 국정교과서 중 국민학교 후기용 국어교과서를 가지고 생략,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어교과서에 먹물칠(잘라내고 풀칠한 것을 포함)을 하여 삭제해야 할 곳을 지우는 형식을 취하였다. 당시의 문부성의 교과서 먹물칠 발상은 패전과 동시에 기밀서류를 소각한 방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진주해오는 미군의 눈에 비취질 군국주의적인 면을 사전에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¹⁵⁾

이후 12월 22일의 지령에 의해 군국주의,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을 폐지하도록 교수 내용을 개정하게 하였다. 이 지령에 의해 이후 문부성에서는 새로운 교과서 제작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민학교 교과서는 극단적으로 군국주의적,

15) 송숙정(2019) 「일본 미군정기 국어독본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먹물칠로 삭제된 제5기 국정독본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0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49-63.

국가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 내용은 매우 빈약한 것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내용이 어떠한지 학습은 이루어져야 했기에 1946년 4월에는 신입 아동과 새로운 학년을 맞는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교과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문부성에서는 1946년 4월 신학기에 맞추어 팸플릿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신문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한 권의 책이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신문지 한 장을 여러 번 접어 각 면을 인쇄면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합군 점령기 팸플릿 교과서

당시 인쇄용지 부족사태와 인쇄 사정을 감안하여 위의 <그림1>과 같은 신문용지를 이용한 8면의 교과서가 탄생되었다. 이 교과서의 이름은 팸플릿 교과서, 접이식 교과서, 타블로이드 교과서, 분권 교과서 등으로 불렸다. 내용은 제5기 교과서를 바탕으로 삭제한 것이므로 교과서 분량도 빈약했으며, 삽화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흑백의 교과서였다.

이후 1947년 문부성에서는 새교육에 맞는 제6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게 된다.

2.2. 전후 한국의 국어교육

해방 당시 조선의 학교들은 여름방학 중이어서 수업이 곧바로 재개되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가 재개될 때만을 기다렸고, 교육자들은 불안과 희망 속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교육은 재개되어야 하나 일본어는 더 이상 교수용어일 수 없고, 일본어로 쓰인 모든 교과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교육을 어

면 내용과 형식으로 개혁해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이후 경력, 사회적 배경 그리고 추구하는 이념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다른 교육개혁 구상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 중에서 미국 유학생 출신의 지식인 집단도 있었다. 후에 ‘천연동모임’으로 알려지게 된 이 그룹의 구성원은 오천석, 유억겸, 김성수, 백낙준, 김활란 등이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이들 미국유학생 출신 네트워크는 이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인 개혁세력의 가장 중요한 실권 그룹으로 활약하게 된다.

미군정 학무당국은 1945년 12월에 ‘조선 새교육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해인 1946년 9월에는 간단한 교수요목을 제정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존 듀이의 교육이념을 도입한 ‘새교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봉건 및 제국주의적 잔재를 배격하고 민주정신에 터를 둔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2. 사람을 수단화하려는 교육을 배척하고, 사람 자체를 위한 교육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3.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존경과 사랑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가진 하나의 사람으로서 교육한다.
4. 각 사람의 개인적 존엄성을 존경하고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며 개인적 능력, 성격, 취미, 희망 등이 존중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5. 사람 전체의 발달,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을 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교육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교사의 부족, 학생의 급격한 증가, 학교시설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특히,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글로 된 교과서가 없었다.

해방 직후 조선어학회는 학교 교육에 쓸 마땅한 교과서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어 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다른 어떤 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군정청의 교과서 편찬 작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조선어학회는 군정이 실시되기 전인 1945년 8월 25일 긴급 총회를 열어 “교과서가 없이 공부 못하는 초등, 중등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계, 문필계, 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임시 국

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였고, 며칠 후인 9월 1일 한글 교재 『한글 첫 걸음』과 『초등국어 교본(상)』 원고를 탈고하였으며, 이튿날에는 국어 교재 편찬 위원회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우리말 입문과 초등 및 중등학교용 교재 편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¹⁶⁾

조선어학회에서 일반용으로 우리말 입문을 편찬한 것에는 당시 우리말을 할 수는 있으나 읽고 쓸 줄 모르는 인구가 많았음에 기인한다. 해방 당시 한국인의 문맹률에 관해 조사한 다음의 결과가 흥미롭다. 1947년 1월 1일에 문교부 조사계획과에서 발표한 「문교행정 개황(1946년판)」에 보면 1946년 당시 13세 이상 총인구 대비 13세 이상의 미취학자의 비율로 문맹률이 77.4%에 이른다 고 보고하고 있다.

<표1> 해방 당시 남한의 문맹률

구분	13세 이상 총 인구	13세 이상 미취학자	문맹률(%)
남	4,999,470	3,260,654	-
여	5,253,668	4,720,248	-
계	10,253,138	7,930,902	77.4

미취학자의 비율로 문맹률을 단순 산출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할 문제이지만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가 1941년에 조사한 일본어 보급률도 17.4%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방 직후 한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어보급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2.3. 전후 대만의 국어교육

국민당 정부의 대만 접수는 4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복건성 주석이었던 진의(陳儀)를 주임위원으로 하여 1944년 4월 17일 ‘대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접수 요원의 훈련과 대만통치정책을 구상했다. 45년 3월 14일 수립된 ‘대만접관계획강요(台灣接管計畫綱要)’에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정책으로 학교의 재개와 교사 충원, 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혁의 주된 목적은 국민국가의 형성 혹은 변혁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 단지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국기를 내리고 올리는 것만으로

16) 전계서5), 정영훈(2012) p.201. 재인용.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국가는 국가의 지배를 승인하고 자신을 그 국가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행동양식을 갖춘 주체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이 새로운 주체는 국가의 탄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거기에 존재하던 많은 사람들, 식민지 대만의 ‘신민’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바꾸고 어린 세대를 새롭게 길러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민 만들기의 장치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다른 아닌 학교교육이다.

진 의는 복건에서 실시한 국어 보급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급속히 국어를 추진하려고 했고, 게다가 본성인(本省人)¹⁷⁾인 자신도 자발적으로 국어를 배우는 열의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1945년 시점의 대만에는 중국어가 새로운 국어로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일본어가 이미 국어로 충분히 보급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1941년에 대만의 일본어 보급률은 57%를 넘었고, 1944년에는 71%에 달하고 있었다.¹⁸⁾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대만인들에게 중국어는 새로운 지배층에 의해 강요받아 새로 익혀야 하는 외국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대만의 40, 50 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를 배우고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어학습열과 함께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교과서 출판이 급증하였다. 황잉츠어(黃英哲, 1999)에 의하면 대만이 중국에 복귀한 시점에서 대만성 국어 추행위원회(台灣省國語推行委員會)가 성립한 1946년 4월 2일까지 사이에 민간에서 출판된 국어교과서는 타이베이(臺北), 타이중(臺中), 타이난(臺南)과 대만 전역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어교과서의 급증적인 수요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사용했던 교과서 11종이었다.¹⁹⁾

이러한 식민지 피지배자가 구 식민지 종주국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국어를 주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전후의 일시적인 현상은 다른 탈식민화 지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17) 본성인이란 한족계 대만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고사족 원주민과 비교를 위해 본도인(本島人)이라 불렀고,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 온 사람들인 외성인(外省人)과 비교하기 위해 본성인(本省人)이라 불리운다.

18) 당시 대만의 인구가 약 600만 명이었는데 일본어 이해자의 수는 420만 명이였다.

19) 전게서 14), 모리타 겐지(2014) p.112.

3.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본 장에서는 전후 3국에서 발행한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해방 전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교과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비취진 국가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3.1.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쇼와16년(1941)부터 순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제5기 국어독본은 이미 쇼와20년(1945)년 8월 종전으로 인해 사용중지 되고 1945년도 후기와 1946년도에 이른바 「黒塗り教科書(검열에 의해 먹물칠로 지워진 교과서)」와 「暫定教科書(잠정교과서²⁰⁾)」가 사용되었다. 이 두 교과서는 제5기의 국정독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의 교과서 중 제6기의 국정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가라사와 토미타로(唐沢富太郎, 1980)의 『교과서의 역사(教科書の歴史)』²¹⁾에 따르면 제5기 국정교과서의 기본적 성격은 초국가주의, 군국주의의 강화선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라사와의 내용분석에 따르면 제5기의 국어독본에는 문학적인 내용이 48.4%를 차지하고, 역사적인 내용은 11.1%, 과학적인 내용은 17.1%, 사회적인 내용은 2.3%, 국가주의적인 내용은 4.3%, 군국주의적인 내용은 14.4%, 그리고 생활적인 내용은 2.6%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이 제6기의 국어독본에는 문학적인 내용이 80.5%, 과학적인 내용이 6.5%, 사회적인 내용이 2.6%, 국가주의적인 내용이 0.7%, 생활적인 내용이 9.7%로 단적인 수치로만 비교하더라도 제5기에 비해 제6기에는 문학적인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군국주의적인 내용은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를 편찬하는 담당자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6기의 교과서를 편찬에 관여한 주된 담당자는 이시모리 노부오(石森延男)이다. 이시모리는 「국어교육의 회고와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 전술한 펄플릿 교과서, 접이식 교과서, 타블로이드 교과서, 분권 교과서라 일컫는 교과서를 가리킨다.

21) 가라사와 토미타로(唐沢富太郎, 1980) 『教科書の歴史』、創文社、p.481.

당시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 어떠한 것도 갖추어 있지 않았다. 혼란과 자살과 허탈 가운데 빠진 교육계였다. 우리들은 먼저 교육방침을 생각하고, 국어교육의 방법을 연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과서 조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들의 신조는 할 수 있는 한 인간성을 배양하고, 사회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었다. 국어교재는 광범위하게 하고, 분량은 아동, 학생의 학습 의욕에 맞도록 근거를 두었다. 어쨌든 소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편집 취지에 의해 교과서를 완성하여 1947년 4월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제6기 국어교과서 교재구성은 초출교재가 70%이상을 차지하여 참신한 교과서가 되었다. 1학년 27과, 2학년 26과, 3학년 23과, 4학년 27과, 5학년 27과, 6학년 24과로 총 154과로 구성되었다.

1학년의 교과서부터 살펴보면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음울감이 뛰어난 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こくご』 1권은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문장들로 리듬감을 주어 학습하는 아동들이 흥미롭게 교과서를 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二 なのはな

なのはな、なのはな、まつのき。

なのはな、なのはな、しろいくも。

なのはな、「おはよう。」 「おはよう。」

なのはな、なのはな、なのはな。

三 むすんでひらいて

むすんで、ひらいて、てをうって、むすんで、

またひらいて、てをうって、そのてをうえに。

五 かくれんぼ

かくれんぼするもの

よっといで。

じゃんけんぽんよ、あいこでしょ。

もういいかい。まあだだよ。

もういいかい。まあだだよ。

もういいかい。もういいよ。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들의 생활놀이를 교재에 사용한 점이다. 위의 3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주먹 쥐고 손을 펴서”이고 5과는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숨었니? 숨었다”라고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제6기의 국어독본은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친근한 문장들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술한 이시모리의 말처럼 사회성을 중요시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こくご』 4권 8과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과로 이전의 국어독본에서는 역대 천황들의 이야기와 천장절(天長節)등 일본의 절기들에 관한 교재는 있었지만 서양의 절기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삼은 교재는 없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산타클로스 장식을 만들어 메어다는 장면은 일본 아동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교재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양의 동화 교재가 많이 사용된 점이다. 『こくご』 3권에는 영국의 ‘다섯명의 아이들’, 『國語』 3학년 상권에는 네덜란드의 ‘황금물고기’, 『國語』 4학년 중권에는 그리스로마신화 ‘황금을 좋아한 임금님’, 『國語』 6학년 중권에는 덴마크의 ‘성냥팔이 소녀’가 실려 있다. 또한 『國語』 5학년 하권에는 미국의 ‘설리반선생과 헬렌켈러’의 이야기도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서양의 동화가 많이 실리게 된 이유에는 미군정을 의식한 교재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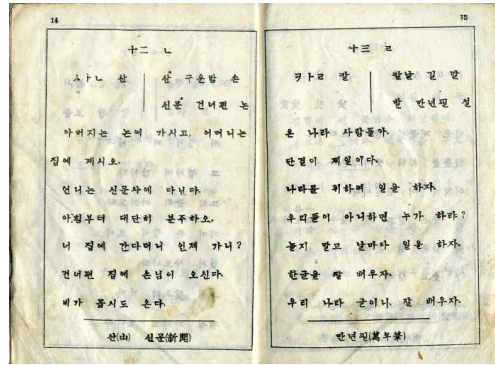
이 외에도 『こくご』 4권에는 ‘우라시마타로’, 『國語』 3학년 하권에는 ‘개미와 베짚이’, 『國語』 6학년 하권에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야기가 연극의 대본의 형태로 실려 있어 학습하는 아동들이 역할극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이전의 국정독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이라 하겠다.

교과서의 형식은 이전의 국정독본과 완전히 일치했지만, 이처럼 이전의 교과서에서 느꼈던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색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교과서로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해방이 되자 ‘조선어학회’는 국어 교육의 시급함을 깨닫고 서둘러서 국어교과서 편찬사업에 뛰어 들었다. 『한글 첫 걸음』은 1945년 11월 6일에 발행되었는데 이 책은 정식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편찬 발행되어 임시로 사용된 교재이기는 하나 초중등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였다. 『한글 첫 걸음』은 우리말과

글을 처음 접하는 아동들을 위해 자음 모음을 중심으로 각 과를 이끌어 나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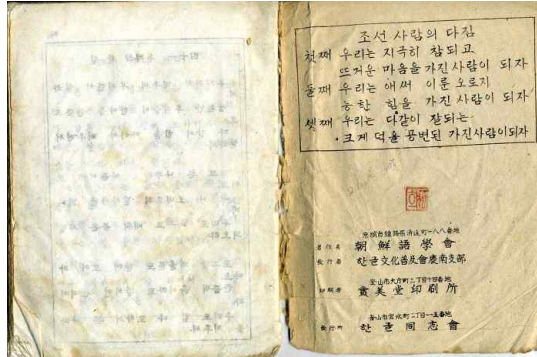


<그림 2> 『한글 첫 걸음』

위의 <그림 2>의 오른쪽 본문 15 페이지를 보면 자음 ‘ㄹ(리을)’에 관한 단원이다. 단어로는 ‘칼날, 길, 말, 밭, 만년필, 설’을 소개하고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ㄹ(리을)’이 들어간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 온 나라 사람들아.
- 단결이 제일이다.
-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자.
- 우리들이 아니하면 누가 하랴?
- 놀지 말고 날마다 일을 하자.
- 한글을 잘 배우자.
- 우리 나라 글이니 잘 배우자.

위와 같이 본문은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18 과의 ‘어머니가 빨래하러 가시니 너도 빨리 따라가거라’와 22 과의 ‘부모의 뜻을 받아라(중략) 아침 해가 돌아온다.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문을 닫고, 공부를 한다’ 와 같이 효를 강조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 곧 부모의 뜻을 받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총 41 과로 이루어진 『한글 첫 걸음』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 사람의 다짐’이 있다.



<그림 3> 『한글 첫 걸음』 판권지

이와 같은 ‘조선 사람의 다짐’을 읽는 아동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일본의 황국신민이 아닌 조선인임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한글 첫 걸음』을 발간한 ‘조선어학회’는 정식 국어교과서의 편찬, 교정, 인쇄, 배본 등 모든 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학부모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책값을 저렴하게 할 것과 인쇄, 배본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발행권을 군정청에 양도했고 그 결과 군정청 학무국에서 12월 30일에는 『초등국어교본』 상권이, 다음해 4월 15일에는 중권이, 그리고 5월 5일에는 하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강진호(2017)²²에 의하면 이 『초등국어교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일본어로 된 『보통학교국어독본』과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기 교과서와 일제 치하의 『조선어독본』을 비교해보면 해방이 되고 또 편찬 주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단원이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발행과 인쇄 또한 일제강점기에 교과서를 편찬하였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충량한 신민’을 만들기 위해 편찬한 『조선어독본』이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그대로 반복된 형국이다. 더구나 이 『조선어독본』은 일어교재인 『국어독본』과 보완적 위치에 있었고 그것은 한편으로 일본의 국정 교과서인 문부성의 『심상소학독본』과 연결되어 있었다. 『심상소학독본』의

22) 강진호(2017) 『국어교과서의 탄생』, 글누림, pp.366-377.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만든 것이 조선총독부 간행의 『국어독본』 이고 『조선어독본』 은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한글로 편찬한 교재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진호는 단원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초등국어교본』 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에 수록된 단원의 약 60% 정도를 그대로 재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두 책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마치 일관성 쌍생아와도 같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일체를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론 반복, 모방하는 형국, 그래서 『초등국어교본』 은 식민과 탈식민이 혼재하는 해방기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보면 ‘조선어학회’가 처음 발행한 『한글 첫 걸음』 은 오히려 독자적인 교재를 개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간한 정식 국어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대만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환

해방 직전까지 대만의 아동들은 대만총독부가 1942년 발행한 『コクゴ(1학년용, 두 권)』 『こくご(2학년용, 두 권)』 『초등과 국어(3-6학년용, 학년별 각 두 권)』 를 사용하였다. 본래는 1941년에 반포된 ‘국민학교령’에 의해 일본과 조선 대만에서는 동시에 일본 문교부에서 편찬한 국어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조선은 일본의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였지만 당시 대만총독부의 편수관이었던 가토 순조(加藤春城)는 제4기, 제5기 대만 국어독본을 편찬하면서 발음 교육 중시, 대만 풍토에 맞는 교재 선택 등 자신만의 편찬 이념을 지켜나갔다.²³⁾ 하지만 일본의 명절을 설명하거나 천황제, 신화 등을 설명하는 등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적인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국민학교잠용국어과본(國民學校暫用國語課本)』의 사용 시기는 1946년 2월부터 8월까지 반년에 불과하지만 통치자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교재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갑편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은 국부 쑨원(孫文)의 사진과 함께 그가 쓴 ‘국부유촉(아버지의 뜻)’이 있다. 내용은 ‘나는 40년 동안 국가 혁명에 헌신했으며 그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23) 송숙정(2015) 「일제강점기 일본과 조선 및 대만 국어독본의 표기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p.48.

단합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 (중략)'로 학습하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지배자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장제스(蔣介石) 주석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는데 사진의 삽입 형태와 이후 실린 범례, 목록 등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구성과 일치하며 활자체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4> 국민 학교잠용 국어과본 갑편

교재의 구성은 1, 2, 3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갑편(50과)과 4, 5, 6학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을편(50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갑편을 1학년은 30과까지, 2학년은 40과까지, 3학년은 50과까지 주당 수업하는 진도를 달리하여 마치게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을편을 4학년은 30과, 5학년은 40과, 6학년은 50과까지 주당 수업하는 진도를 달리하여 마치게 하였다.

<표2> 『國民學校 暫用國民課本』 갑편 교재목록표

1 台湾人	2 中国人	3 一家人	4 一家六個人	5 今年幾歲
6 鷄叫子	7 大家起來	8 吃早飯了	9 下田去	10 洗了衣服又紡紗
11 你可知道	12 糧食和衣料	13 房屋	14 鄉村和城市	15 城市裏面
16 中華民國	17 青天白日滿地紅	18 孫中山先生	19 記念國父	20 受了侮辱敢反抗
21 中国以外	22 從地圖上看中国	23 台湾是一個大島	24 日本侵略中国	25 打瞌睡的獅子
26 日本人的生活	27 日本强占了台湾	28 屈辱的日子	29 全中国的抗戰	30 日本投降了
31 在樹上	32 紅光的怪物	33 搬到山洞裏	34 鑽木取火	35 工具和武器
36 古代的氏族	37 藍子和陶器	38 古代人打獵	39 畜牧和種植	40 從氏族到国家
41 從工具到機械	42 巨大的工人	43 瓦特的發明	44 富蘭克林的實驗	45 人民要做国家的主人
46 我們的世界	47 全世界的人類	48 侵略的国家	49 兩次世界大戰	50 世界永久平和

<표3> 『國民學校 暫用國民課本』 을편 교재목록표

1 台湾人	2 我們的祖宗	3 中国收復台湾	4 父母子女	5 年齡
6 哪裏來的	7 糧食	8 衣料	9 南方人常吃米飯	10 四季的衣服

11造房屋	12不同的房屋	13鄉村和城市	14大有進步	15公共事務
16中華民國	17青天白日滿地紅	18孫中山先生	19建國的基礎	20孔子
21日本人	22起了野心	23先攻打台灣	24五十年前	25台灣人的抗戰
26受恥辱的日子	27全中國的抗戰	28我們的敵人	29蔣委員長	30最後勝利
31從抵禦到征服	32完城人類的生活	33機械比人強	34蒸氣機的發明	35電化的世界
36產業革命	37工業社會裏的農業	38組織合作社	39大家分工合作	40民主政治
41我們的世界	42世界最富有的國家-美國	43保留著國王的民主國-英國	44我們貼近的鄰國-蘇聯	45偉大的指示-三民主義
46帝國主義者的戰爭	47中國的革命運動	48大戰根源和國際局面	49打倒侵略國	50民主國家的大家庭

위의 표를 살펴보면 갑편과 을편이 서로 중복되는 단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의 교과서는 한 학기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한 교과서였다. 갑편과 을편을 전학년이 학습하게 하였기 때문에 갑편과 을편에는 문장의 수준은 달랐지만 내용이 같은 과들이 많이 눈에 띈다.

먼저 갑편과 을편의 1과는 ‘대만인’이다. 2과는 ‘중국인’과 ‘나의 선조’이다. 그동안은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아 온 아동들에게 하루아침에 ‘대만인’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뿌리는 ‘중국’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갑편에서는 ‘중화민국’과 손중산(쑨원) 선생에 대한 찬양, 그리고 국부인 쑨원에 관한 교재가 실려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반면 일본 침략 당시의 중국의 모습과 일제강점기의 대만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나날이 굴욕적이었다고 표현하며 전 중국이 일본에 대항하여 항전을 계속한 결과 일본이 투항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을편에서도 ‘중화민국’과 손중산 선생에 대한 찬양, 건국의 기초를 다진 쑨원 선생과 대만인의 항전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비굴의 나날이었고, 전 중국적인 항전을 통해 우리들의 적인 일본인을 물리쳐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장제스 위원장의 업적을 치하하며 앞으로 발전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미국, 영국, 소련의 발달된 모습을 강조하며, 전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이념으로 위대한 삼민주의²⁴⁾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재로 학습하는 아동들의 이데올로기의 혼란이다. 특히나 고학년은 국민 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황국신민이 되어 일본 천황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한다고’ 맹세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는 대만인입니다. 당신은 대만인입니다. 그들은 대만인입니다. 우리들도 대

24) 쑨원이 제창한 중국 근대 혁명의 기본 이념으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만인입니다(我是台灣人 你是台灣人 他是台灣人 我們都是台灣人-갑편 1과)’ 라고 교육받는다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음이 틀림없다. 더군다나 다음의 갑편 24과를 보면 일본은 침략자로 묘사하는 것도 모자라 송충이에 비교되고 있다.

선생은 지도 옆에 서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모두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한 장의 추해당의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충이도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추해당의 잎은 지도상의 중국의 위치입니다. 이 송충이의 위치는 지도에서 보는 일본의 위치입니다. 이 송충이는 추해당의 잎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중국침략입니다.’

(老師站在地圖旁遊拿着一幅圖給大家看_上面畫着一片|秋海棠葉又畫着一條毛蟲這裏秋海棠葉的位置|正是地鼠上中國的位置這裏毛蟲的位置正是地圖上日本的位置這裏畫者毛蟲爬去吃秋海棠葉，就是表明從前日本想侵略中國)

물론 위의 글을 읽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중국을 침략하려는 나쁜 무리로 강하게 인식되었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바로 몇 달 전까지 스스로가 일본의 신민이라 생각했던 2, 3학년 학생들은 이 글을 읽으며 어떠한 혼란을 겪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러한 문장을 그들이 그동안 학습해 온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읽고 있다. 하루아침에 지배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 기뻐했지만, 새로운 정권에 의해 다시 피지배자가 된 지금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대만인들이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광복 이전에 대만은 민남어(閩南語)와 객가어(客家語) 그리고 대만 원주민어 등이 혼재하는 다언어사회였다. 그런 상황에서 광복 전까지 민남인과 객가인, 원주민 등 족군간의 의사소통의 공통어로 사용된 것이 일본어였으며, 광복 후 이를 새로운 공통어로 대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언어를 새로운 공통어로 할지도 문제였다. 민남어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로서 대만어가 될 가능성이 컸지만 독자적인 문자를 갖지 못했고, 다른 족군의 반발 문제도 있었다. 결국은 중국어를 새로운 국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광복을 환영한 것처럼 대만인은 새로운 국어인 북경어를 애초부터 거부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국어를 일본어에서 북경어로 대체하는 속도, 그리고 국어 문제의 정치성에 있

었다. 공서는 1946년 10월 25일부터 신문잡지의 일문판을 폐지함으로써 대만인들의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국어습득 여부를 공식 충원이나 참정권 부여의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참여 기회 역시 제한했다.

심지어 국부 중앙의 대만 패퇴 이후인 53년부터는 교실에서 ‘국어’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어’에 의한 수업이 불가능한 본성인 교사는 외성인 교사로 대체되었다. 교실에서 이른바 ‘방언’ 사용을 별하는 관행이 생겨 식민지기의 악명 높았던 관행인 방언찰이 이 무렵에 부활했다. 이는 모어에 대한 대만인의 열등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진학 기회에서도 성적모순을 야기했다.²⁵⁾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44년도의 일본어 보급률이 71%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하루 속히 이들의 언어를 장악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는 그들의 공통어 이상으로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중국어를 배워 생활에 적응하기란 실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악행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이라 일컫는 ‘국어상용화’ 정책이 다시 부활하고, 더욱이 중국어를 못하는 아동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반영하고, 결국에는 직장 내의 차별뿐만 아니라 참정권 부여의 기준으로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이러한 악행을 비유해 ‘개가 가니 돼지가 왔다’라는 말이 돌았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를 맞은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며 그들의 교육정책 중 국어교육과 국어교과서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국민당 정부의 시대를 맞은 대만의 것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연합군 점령기의 일본의 국어교육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 온 군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사상에서 벗어나 학습하는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사회성 성장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계

25) 전게서1), 오성철(2012) p.10. 재인용.

를 뒤바꾸려는 움직임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년간의 미군정기를 맞이한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정책 또한 이루어졌는데, 초기의 교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국어교과서’로 식민지 강점의 주체자였던 일본은 스스로 그동안 자신들을 옹아매었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을 창시해 나갈 즈음에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가 식민지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뭇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민당 정부에 의해 새로운 교과서가 탄생한 대만은 탈식민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된 탈식민의 모습은 역으로 주체만 바뀌었을 뿐 일제강점기의 교육과 달라진 바가 없었다. 대만인이라는 자각을 유도하고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교과서 내용을 통해 아동들에게 일본의 잠재의식에서 벗어나자고 부르짖었지만, 해방 직후 대만의 일본어 보급률이 78%였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태어나서 줄곧 일본어로 모든 교육을 받아 온 세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은 침략자이며 자신들의 선조는 중국인이라고 교육하는 것은 그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의 혼돈을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 일본과 한국, 대만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전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국어교육의 개혁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혼란의 시기 또한 긴 역사 가운데 오늘날의 국어가 있겠끔 한 토대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후 이상의 상황이 초등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진호(2017) 『국어교과서의 탄생』, 글누림, pp.366-377.
 김상훈(2015) 「미군정기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인의 역할」 『역사연구』 28호, 역사학연구소, pp.119-163.
 김진두, 김창옥(2013) 「미군정기 교과서 출판 연구」 『출판잡지연구』 21권 1호, 출판문화학회, pp.61-87.
 송숙정(2015) 「일제강점기 일본과 조선 및 대만 국어독본의 표기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p.43.

- _____ (2019) 「일본 미군정기 국어독본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먹물칠로 삭제된 제5기 국정독본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50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49-63. (DOI : 10.20404/jscau.2019.02.50.49)
- 오성철(2012) 「전후 동아시아의 교육개혁 비교 연구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5권 1호, 서울교육대학교, pp.1-20.
- 오성철, 김배철(2008) 「현대 한국과 대만의 초등교육 확대과정 비교 연구」 『한국초등교육』 18권 2호, 서울교육대학교, pp.165-184.
- 이길상(2003) 「미군정기의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25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75-109.
- 이희호(2012) 「미군정기 『한글 첫걸음』 교재에 대한 맥락 연구」 『겨레어문학』 48집, 겨레어문학회, pp.517-553.
- 정영훈(2012)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 재론」 『배달말』 50호, 배달말학회, pp.197-222.
- 허재영(2004) 「과도기(1945~1955)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17호, 한글학회, pp.59-90.
- 磯水絵外(2018) 『戦後日本の国語教育』、沖山光研究会、pp.67-96.
- 唐沢富太郎(1980) 『教科書の歴史』、創文社、p.481.
- 黄英哲(2002) 「戦後台湾における「国語」運動の展開：巍建ス功の役割をめぐって」 『法学研究：法律・政治・社会』 vol.75,no.1、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pp.401-427.
- 佐渡泉(2006) 『国語教科書の戦後史』、勁草書房、pp.1-8.
- 陳虹炫(2006) 「終戦直後台湾における教科書編纂に関する一考察」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第55集第一号、東北大学、pp.15-36.
- 野村敏夫(2006) 『国語政策の戦後史』、大修館書店、pp.21-54.
- 森田健嗣(2014) 「戦後初期台湾における言語政策研究再考—代りされた脱植民地の視角から」 『日本台湾学会報』 第十六号、日本台湾学会、pp.107-125.

논문 투고 일자 : 2020.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要旨＞

戦後日本、韓国、台湾の国語教科書と国家イデオロギーの転換に関する研究

宋淑正

本稿では戦後米軍政期を迎えた韓国と日本の状況の中で行われた教育政策のうち国語教育と国語教科書に含まれたイデオロギーを国民党政府の時代を迎えた台湾の国語教育と比較してみた。

その結果、米軍政期日本の国語教育はそれまで日本が主張してきた軍国主義と国家主義を強要する思想から抜け出して学習する児童・生徒ひとりひとりの人格と社会性成長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3年間の米軍政期を迎えた韓国は非常に慌ただしい雰囲気の中で教育政策もまた成り立ったが、初期の教科書では総じて惜しくも日本植民地時代に朝鮮総督府で発行した教科書の内容をそのまま移した教科書で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一方、国民党政府によって新しい教科書が誕生した台湾は脱植民の姿を強く見せている。

しかし、このような意図的脱植民の姿は逆に主体だけ変わっただけで、日本植民地時代の教育と変わったことはなかった。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Textbooks and National Ideology in Postwar Japan, Korea, and Taiwan

Song, Sook-Jeong

This study compares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nd ideology contained in national language textbooks among the educational policies implemented in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after the postwar U.S. military politics with Taiwan's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the days of the KMT govern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Japanese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U.S. military era focused on the personality and social growth of each child who learns from the thoughts that forced Japan to impose militarism and nationalism. In the wake of the three-year U.S. military politics, South Korea established an educational policy in a very confusing atmosphere, but the textbooks issu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transferred through the early textbooks. It turned out that it was a textbook that did. On the other hand, Taiwan, where a new textbook was created by the KMT government, the appearance of decolonization was clearly visible. However, the appearance of such a deliberate de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only changed the subject, and it was no different from the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